

반응요구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

김미령**

- I. 머리말
- II.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 1. 공통 특징
 - 2. 개별 특징
- III. 후행발화의 화행 유형의 설정
 - 1. 유형 설정의 기준
 - 2. 후행발화 화행의 하위 유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실현되는 후행발화는 선행발화의 성격과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화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후행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발화의 성격을 공통 특징과 개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후행발화의 화행을 살피기 위해 후행화자의 의도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대화 협력에 대한 의도(1,2차)에서는 대화의 성립을 위한 후행화자의 협력적인 태도를 살피고, 대화의 방향에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 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75-A00058)

**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대한 의도(3차)에서는 후행화자의 태도의 방향을 살피는데, 대화의 방향에 대한 의도를 다시 선행발화 내용에 관한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내용에서의 요구가 행위에 대한 것인가,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수용에 대한 선택의 태도와 동일성에 대한 판정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 방향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확정적 태도 인가와 대화의 분위기를 화합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살피었는데, 화합으로의 대화 방향성에 대한 것은 후행화자의 태도 결정에 관여적일 때만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후행발화의 유형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후행화자의 의도에서 [+/-반응], [+/-관련], [+/-확정], [행위/사고], [+/-받아들임], [+/-판정], [+/-동일]을 설정하고, [+/-화합]의 의도를 반영하여, 이의 유형으로 수용 화행, 거부 화행, 긍정 화행, 부정 화행, 제보 화행, 유보 화행, 반문 화행, 목살 화행, 무응답 화행을 설정하였다.

주제어 : 대화 협력, 대화의 방향, 언어적 반응, 내용의 관련성, 확정적 태도, 선택의 태도, 판정의 태도, 화합, 수용, 거부, 긍정, 부정, 제보, 유보, 반문, 목살, 무응답

I. 머리말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은 필수적 요소이다. 말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때,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청자가 오해 없이 잘 이해하게 되면 의사소통상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전달이 잘 되었다고 해서 대화가 반드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했더라도

화자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청자의 의도와, 대화의 성립과 방향에 대한 청자의 의도에 따라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발화에서 후행화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할 때는 화자가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대화에서의 선행발화가 후행화자와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후행화자도 선행화자의 의도에 맞추어 협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행화자의 의도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언어적 상호활동으로서의 대화는 처음의 선행발화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처럼 대화의 성립과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후행발화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장경희(1999:25-44)에서는 선행화자의 진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수용과 거부라는 관점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태도에 대해 명제내용과 화행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수용과 거부 외에도 다른 방식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분석되고 있고, 또한 수용과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화에 협력하는 태도와 의미적으로 수

- 1) 박용익(1997:58)에서는 청자의 역할에 대해, “대화의 청자는 발화의 청취나 이해행위 이외에 말에 대한 주의집중, 맞장구, 동의, 부정 등을 나타내는 청자반응을 수행함으로써 화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 되도록 한다”(장경희(1997)에서 재인용)고 하고, 김순자(1999:48)에서는 “청취라는 수동적인 역할과 화자의 화행에 따른 대응 화행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청자 반응이라고 불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청자의 반응에 대해 지지나 동의, 공감 등의 범주와 부정, 거부 등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2) 일반적으로 대화참여자들의 의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화합적이 되어 대화의 방향도 당연히 화합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대화참여자들의 의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선행화자에 대해 후행화자의 의도가 다를 경우에는 대화 방향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대화는 대답이나 회피, 화합의 방향으로 될 수 있다.

용하는 태도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상규·구현정 공편(2005:159-306)에서는 DAMSL³⁾의 체계에 따라 대화행위를 전망적 기능과 회고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전망적 기능은 진술행위, 지시행위, 언약행위, 표출행위, 선언행위, 호출행위로, 회고적 기능은 동의행위, 이해행위, 답변행위, 반응행위로 구분하고, 이 체계를 바탕으로 받는 말로서의 회고적 기능의 행위들을 다루었다. 여기서의 “앞선 말은 뒷말을 이끌어내는 자극이 되고, 뒷말은 앞선 말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다시 그 뒷말을 이끌어내는 자극이 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화에서의 발화를 전망적 기능과 회고적 기능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망과 회고를 동시에 가지는 기능도 유형으로서 살펴져야 할 것이고, 또 회고적 기능의 행위들이 전망적 기능과 더불어 실현될 수는 있어도 전망적 기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화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위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행발화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글에서는 우선 선행발화의 성격이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⁴⁾의 후행발화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에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기 위해, 2장에서는 후행발화가 실현되는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3장에서는 후행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후행발화의

-
- 3) “1996년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연구자들이 구어 주석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Discourse Research Initiative(DRI)를 발족했는데, <...> 이 가운데 일반적인 수준 높은 담화행위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ultiparty Discourse Group에 의해 개발된 구어 담화 주석 방식(Dialog Act Markup in Several Layers)이다.” (서상규·구현정 공편(2005:162)에서 인용)
- 4) 김미령(2005:97-121, 2006:1-34)에서는 말할이의 의도를 바탕으로, 선행발화를 전달에 목적을 두는 화행과 들을이의 반응까지 요구하는 화행으로 구분하고 화행의 유형을 살피고 있는데, 특히 반응요구 화행에서는 제안, 허가, 권유, 요청, 명령, 경고, 질문, 호소 화행을 설정하고 있다.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행발화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개별 화행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선행발화가 발화된 후 순서 교대에 의해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가 발화되는데, 이때 후행발화는 크게 보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⁵⁾ 즉, 선행발화를 들은 후행화자는 먼저 이를 이해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대화에서의 후행발화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언어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후행발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발화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선행발화가 발화되기 이전까지의 후행화자와 선행화자의 관계⁶⁾가 관여되고, 발화 시점 이전에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준 만한 특별한 일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그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비로소 후행화자의 의도가 발화로 표출이 된다. 즉, 후행발화는 선행발화 시점 이전까지 선행화자와 가졌던 관계에 특별한 일이나 경험이 더해지고, 여기에 선행발화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가 보태어져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표출이 되는 것이다.⁷⁾

-
- 5) 장경희(1997:220)에서는 ‘말하기, 듣기’ 등으로 나타나는 화자와 청자의 행위에 대해, 화자의 말하기 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용행위로 구분하고 있고, 듣기 행위는 이해와 반응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 6) 대화 상황에서 말할이와 들을이와의 관계는 힘의 크기, 친밀성의 정도, 격식성의 유무로 살펴볼 수 있다. 김미령(2003:94-95) 참조.
- 7) 최창렬(1983a:55)에서는 발화의 의미를 발화의 언어외적 상황으로부터 주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후행발화 : < 발화시점 이전의 선행화자와의 관계 >
+
< 이전의 특별한 일이나 경험 >
+
< 선행발화에서 파악한 내용 >
+
< 후행화자의 의도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발화 시점 이전의 선행화자와의 관계나 이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일 따위는 후행화자의 심리적인 배경이 되어, 발화에 앞서 후행화자가 선행화자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가 결정되는 부분으로서 대화의 참여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개입이 된다.⁸⁾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발화가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발화일 때 후행발화에서 실현되는 화행의 유형을 살피기 위해서, 후행화자가 선행발화에서 파악한 내용과 후행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여 후행발화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후행화자가 선행발화의 내용으로 파악하게 되는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을 공통 특징과 개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어지는 일련의 가정(assumption)을 토대로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assumption)이란 화자와 청자의 머리 속에 전제되거나 선행발화로 표현된 것이 뇌리에 잔재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8) 특히, 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은 화자의 의도 부분에서 대화의 방향성에 개입이 된다.

1. 공통 특징

발화에 들어 있는 화자의 의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것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대상과 목적하는 내용에 따라 발화가 가지는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에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목적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는 대화에서 선행발화의 성격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응을 요구하는 선행발화가 가지는 공통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선행발화에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행발화가 후행발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살펴 보겠다.

- (1) ㄱ. 빨리 집으로 가거라.
 ㄴ. 영희보고 집으로 가라고 해 주세요.
 ㄷ. 서울로 가실 손님은 지금 바로 버스에 올라 주세요.

(1)은 화자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는 발화들이다. (1ㄱ)에서 화자의 목적은 청자가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고, (1ㄴ)은 영희가 집으로 가는 것이며, (1ㄷ)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버스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1ㄱ)-(1ㄷ)은 목적의 대상이 각각 다르다. 즉, (1ㄱ)에서는 목적의 대상이 대화참여자인 청자여서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1ㄴ)에서는 자신의 목적인 ‘영희가 집으로 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청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도가 목적의 대상인 영희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고, (1ㄷ)에서는 목적의 대상이 그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도가 청자

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다른 점이 있다. 이렇듯 화자의 의도가 직접, 간접, 혹은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서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는 다르게 된다. 즉, (1ㄱ)처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목적으로 하는 의도에 대한 언어적 반응이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1ㄴ)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1ㄷ)처럼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 그것은 (1ㄴ)에서는 목적의 대상인 영화가 대화 상황에 없기 때문이고, (1ㄷ)에서도 목적의 대상이 불특정의 다수여서,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는 한 언어적 반응을 대체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성때문에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를 살필 수가 없다.

따라서 후행발화가 실현되는 선행발화의 첫 번째 특징은 선행발화에서의 청자가 특정의 대화참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발화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살펴보겠다.

우선 선행발화 내용에서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선행발화가 후행발화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다르게 된다.

(2) ㄱ. 오늘 날씨가 좋겠네.

ㄴ.

(3) ㄱ. 오늘 학교 마치고 무슨 일 없나?

ㄴ. 네, 없어요.

(2-3)은 모두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다. (2ㄱ)은 날씨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3ㄱ)은 아들의 나중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2ㄱ)에서는 엄마가 자신의 생각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아들의 언어적 반응을 발화에서 직접 의도하지 않고 있으나, (3ㄱ)은 엄마가 아들의 방과 후의 일에 대해 발화에서 언어적인 반응을 직접

의도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발화의 내용에서 화자가 청자의 언어적 반응을 요구 하는가에 따라 발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가 달라져서, 언어적 반응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2ㄴ)처럼 되지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3ㄴ)처럼 나타나게 된다.⁹⁾

따라서 후행발화가 실현되는 선행발화의 두 번째 특징은 선행발화에서 청자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화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발화의 내용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선행발화가 후행발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된다.

(4) ㄱ.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줘.

ㄴ. 알았어.

(5) ㄱ. 철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ㄴ. 적극적으로 착하지.

(4-5)는 모두 친구끼리의 대화이다. 여기서 (4ㄱ), (5ㄱ)은 모두 청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4ㄱ)에서는 선행화자인 자신에게 전화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5ㄱ)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선행발화에서의 요구가 청자의 행위에 대한 것인가, 생각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후행화자는 요구받은 행위에 대한 자신의 선택적 태도를 (4ㄴ)처럼 표출하기도 하고,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5ㄴ)처럼 표출하기도 하므로, 선행발화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선행발

9)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함.

화가 후행발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후행발화가 실현되는 선행발화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선행발화에서의 화자의 요구가 행위에 대한 청자의 선택적 태도 표출이나 내용에 관한 생각 표출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2. 개별 특징

발화의 목적으로 볼 때, 선행발화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관한 화자의 의도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에 따라 선행발화의 개별성이 드러나게 된다.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에는 친교적으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도, 강제성을 띠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 선택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도들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적 의도가 어떤 양상으로 개입되는가에 따라 선행발화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¹⁰⁾

즉, 관계를 고려한 의도에서 어떤 의도들이 어떤 양상으로 개입되는가에 따라 대화의 방향에 관한 선행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점이 청자가 선행발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응으로서 후행발화를 할 때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선행발화에서의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의 있고 없음에 따라 선행발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청자의 후행발화도 달리 실현이 된다.

10) 김미령(2006:10-19)에서는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외에 ‘위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위협’의 자질은 ‘경고 화행’의 자질로서 선행발화의 유형화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후행화자가 선행발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명령 화행’ 이상의 부담의 크기는 그리 관여적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6) ㄱ.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는 게 어때?

ㄴ. 좀 생각해 보고요.

(7) ㄱ. 지금 당장 집으로 와.

ㄴ. 예.

(6-7)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다. 여기서 (6ㄱ)에서 엄마는 아들에게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를 하면서, 강제성 없이 친교적으로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선행발화가 (6ㄱ)처럼 이런 유형의 화행을 보일 때에는 후행화자는 대체로 자신의 의도대로 편안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나 (7ㄱ)에서는 엄마가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를 하면서, 아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들의 기분을 고려하는 친교적 의도 없이, 강제적 성격으로 선택권을 주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때 선행발화가 (7ㄱ)처럼 화행을 보일 때에는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한, 대체로 선행발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표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청자에 대한 친교나 부담, 강제성이나 선택권의 있고 없음에 대한 내용은 선행발화의 성격을 결정지어 후행발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데, 선행발화의 이러한 성격에 따라 후행화자가 파악하는 부담의 크기가 달라져서 대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III. 후행발화의 화행 유형의 설정

선행발화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후행발화의 성격도 결정이 된다. 특히, 선행발화에서 후행화자의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행발화의 요구내용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가

발화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화에 대한 후행화자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 실현되는 후행발화의 유형을 살피기 위해, 후행화자의 대화에 대한 태도와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는 후행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행발화의 화행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1. 유형 설정의 기준

선발화에서 언어적 반응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 이에 대한 반응이 언어적으로 표출이 된다. 이때 언어적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에는 후행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후행화자의 의도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8) 가. 우리 아버진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너의 아버진?

나. ...

(8)에서처럼 후행발화에서 언어적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후행화자의 의도에 의해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행발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언어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언어적 반응 유무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로서, 여기서 언어적 반응으로의 의도가 있으면 후행발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행발화가 없어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 즉, 선행발화에 대해 언어로 반응하여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후행화자의 의도가 없으면 대화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는 대화의 성립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여기서 개입된 후행화자의 의도는 대화성립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이 의도를 ‘대화 협력에 관한 1차 의도’라 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9) ㄱ.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ㄴ. 난 뭐야?

(9)에서처럼 선행발화에 대해 언어적 반응을 하더라도 선행발화에서 요구받은 내용에 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화 상황에서는 흔히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선행발화에 협력하지 않는 (9ㄴ)과 같은 경우도 후행화자의 의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행발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요구받은 내용에 관한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선행발화의 내용에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 후행화자가 대화에 협력적이기 위하여 자신이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후행발화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후행화자가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화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은 말의 내용을 돌림으로써 대화에 협력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후행화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표면적으로는 선행발화에 대한 언어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화의 참여자들끼리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적합한 의사소통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대화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는 대화의 협력적, 비협력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기서 개입된 후행화자의 의도 역시 대화의 성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도를 ‘대화 협력에 관한 2차 의도’라 하기로 한다.¹¹⁾

그리고 다음은 선행발화의 요구 내용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경우이다.

(10) ㄱ. 밥 먹었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

ㄴ. 알았어.

(10)에서는 선행발화의 요구 내용에 대해 후행화자는 요구받은 내용대로 (10ㄴ)처럼 따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후행화자가 요구의 내용에 따라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후행발화의 성격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후행발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선행발화에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태도의 선택 문제로, 요구받은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가 실현되는 부분으로서, 후행화자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즉, 요구받은 내용대로 따르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대화가 화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의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대립적이고 비협력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는 대화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

11) 여기서의 1차, 2차 의도는 ‘대화에 관한’ 후행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대화 성립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도는 대화의 예비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 되므로, 이 의도를 ‘대화의 방향에 관한 의도’라 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개입되는 의도가 결국 후행화자의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중심적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므로, 후행발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로,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이 행위에 관한 것일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이는 태도는 ‘받아들임’에 관한 선택의 태도가 문제된다. 즉, 요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후행발화의 구체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하위기준이 된다.

둘째로,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이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 기억, 일, 경험과 같은 사고의 내용에 관한 것일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이는 태도는 ‘판정성’에 관한 선택의 태도가 문제된다. 즉, 자신의 사고 내용과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이 동일한가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할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태도는 후행발화의 구체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하위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판정을 해야 한다면 ‘동일성’의 유무를 살펴 다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 후행화자의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태도에서 후행화자가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확정적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태도가 문제된다. 즉, 확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선행화자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후행발화에서 보이게 되지만, 확정적인 태도가 아닐 경우¹²⁾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

12) 류현미(2002:108)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화행을 ‘비한정적 화행’이라 하고, 선행발화의 화용적 요구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발화행에서 추구된 행위 목적에 대해 반응화행의 화자가 아직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로, 이런 경우는 후행화자가 자신의 확정적 태도가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요구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확정적인 반응에 대한 후행화자의 선택적 태도는 후행발화의 구체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하위기준이 된다.

넷째로, 후행화자의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태도에서 후행화자가 화합을 의도하는가에 관한 선택의 태도가 문제된다. 즉, 대화의 방향이 화합적이길 원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가 태도로서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태도는 앞서 심리적인 배경이 되는 요건과 선행발화의 성격에서 파악된 부담의 크기 등이 작용하여 방향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 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특히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이 행위에 관한 것일 때 더욱 관여적이 되는데¹³⁾, 자신이 원하는 선택의 방향과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대화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청자의 힘이 강할 경우, 자신의 선택 방향보다 대화의 방향이 우선시 된다.

따라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후행발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행화자의 의도를 다음과 같은 기준¹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1) 언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 [+반응], [-반응]
- 2) 요구받은 내용에 관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 13) 화합에 관한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의도는 행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에 관한 것일 때에도 적용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고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도 하위 유형에서만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14) 다양한 함수관계를 갖는 화행을 분석하는데 있어 양분법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이용하였고, 이의 심층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 [+관련], [-관련]

3) 요구받은 내용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1) ‘받아들임’의 선택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받아들임], [-받아들임]

(2) ‘동일성에 대한 관정’의 태도가 어떠한가.

[+관정], [-관정] / [+동일], [-동일]

(3) ‘확정’의 태도가 어떠한가.

[+확정], [-확정]

(4) 대화의 방향성에서 ‘화합’을 의도하는가

[+화합], [-화합]

이와 같이 선행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반응은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후행발화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에서 살핀 기준을 중심으로 후행발화의 개별 화행에 대해 살펴보겠다.

2. 후행발화 화행의 하위 유형

2.1. 수용 화행

수용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선택의 태도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받아들임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11) ㄱ. 오늘은 마치고 바로 와야 해.

ㄴ. 알았어요.

(11)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에게 행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1ㄱ)에서 엄마는 상대방인 아들

에게 곧바로 올 것에 대한 아들의 행위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들은 선택의 태도로서 (11ㄴ)처럼 받아들임의 태도로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선행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상대방인 후행화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12) ㄱ. 엄마, 용돈 좀 올려 주세요.

ㄴ. 말만 잘 들으면 올려 줄게.

(12)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아들이 엄마에게 용돈을 올려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엄마는 선택의 태도로서 (12ㄴ)처럼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일겠다는 ‘조건적’ 받아들임의 태도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적으로 받아들임의 태도를 취하는 이와 같은 것도 수용의 화행으로 본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후행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받아들임의 태도로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수용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행위], [+받아들임], [+화합]이 된다.

2.2. 거부 화행

거부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선택의 태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되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받아들이지 않음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 (13) ㄱ. 몸에 좋은 음식도 좀 먹어라.
 ㄴ. 싫어요.

(13)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에게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3ㄱ)에서 엄마는 상대방인 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아들의 행위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들은 이 요구에 대한 선택의 태도로서 (13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싫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후행화자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 선행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상대방인 후행화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14) ㄱ. 심부름 좀 갔다 와라.
 ㄴ. 난 비 오면 나가기 싫어요.

(14)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에게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4ㄱ)에서 엄마는 상대방인 아들에게 심부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아들은 선택의 태도로서 (14ㄴ)처럼, 여기서 제시한 조건일 경우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적’인 받아들이지 않음의 태도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이 같은 경우도 거부의 화행으로 본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후행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거부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행위], [-받들임], [-화합]이 된다.

2.3. 긍정 화행

긍정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의 내용에 관한 것일 때, 후행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이들에 대해 ‘동일하다’고 판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동일성에 대한 판정의 의도’가 들어있는 화행을 말한다.

(15) ㄱ. 오늘 음악 수업은 재미있었니?

ㄴ. 예, 재미있었어요.

(15)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에게 사고 내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5ㄱ)에서 엄마가 상대방인 아들에게 오늘 수업에 관한 아들의 느낌을 알고자 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아들은 수업에서의 느낌을 떠올려서 그 느낌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동일한가를 판정한 뒤, (15ㄴ)처럼 ‘예’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에 관한 내용일 때, 후행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이들에 대해 동일하다고 판정하는 태도로 말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긍정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사고], [+판정], [+동일]이 된다.

2.4. 부정 화행

부정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 내용에 관한 것일 때, 후행화자가 자

신의 사고 내용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이들에 대해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비동일성에 대한 판정의 의도’가 들어있는 화행을 말한다.

- (16) 가. 오늘 시험 잘 쳤니?
나. 아니요, 못 쳤어요.

(16)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에게 사고 내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6가)에서 엄마가 상대방인 아들에게 오늘 시험에 관한 아들의 경험을 알고자 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아들은 경험을 떠올려서 그 경험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동일한가를 판정한 뒤, (16나)처럼 ‘아니요’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에 관한 내용일 때, 후행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을 선행발화에서의 요구 내용에 맞추어 이들에 대해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태도로 말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부정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사고], [+판정], [-동일]이 된다.

2.5. 제보 화행

제보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의 요구가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의 내용일 때, 후행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 중에서 요구받은 내용에 맞추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요구정보 제공의 의도’가 들어있는 화행을 말한다.

- (17) ㄱ. 오늘 음악 수업시간에 뭐 했니?
ㄴ.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 연주도 들었어요.

(17)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엄마가 아들의 수업 내용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ㄱ)에서는 엄마가 상대방인 아들에게 수업시간에 한 일의 경험을 알고자 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아들은 (17ㄴ)처럼 수업시간의 일을 떠올려 요구받은 내용에 맞는 정보로 노래 부르고 피아노 연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서의 요구가 후행화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에 관한 내용일 때, 후행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 중에서 요구받은 내용에 맞추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태도로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제보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사고], [-판정]이 된다.

2.6. 유보 화행

유보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선택의 태도가 받아들임의 여부를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태도로 선택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다음에 선택하는 태도를 보여서 선택의 결정을 뒤로 미루는 태도가 되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선택 미룸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 (18) ㄱ. 너도 내일 모임에 같이 가자.
ㄴ. 글썄¹⁵⁾ 난 내일 되어 봐야 알겠어.

15) 이와 같은 ‘글썄’에 대하여, 이필영(1999:102)에서는 선행발화 내용에 대

(18)은 친구끼리의 대화로 선행화자가 친구에게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8ㄱ)에서 선행화자는 상대방인 친구에게 모임에 같이 갈 것에 대한 친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친구는 자신의 받아들임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18ㄴ)처럼 불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태도는 다음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 (19) ㄱ. 너 돈 좀 빌려 줄 수 있니?
 ㄴ. 얼마나?
 ㄱ. 이만 원만.
 ㄴ. 어, 안 돼.

(19)는 형과 동생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형이 동생에게 돈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9ㄱ)에서 선행화자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한 동생의 행위에 관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후행화자인 동생은 곧바로 선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19ㄴ)처럼 자신이 빌려줘야 할 돈의 액수를 형에게 물어서 (19ㄱ)의 액수를 듣고서야 비로소 (19ㄴ)처럼 자신의 선택의 태도를 결정하여 말로 나타내고 있다.¹⁷⁾

해 열른 긍정이나 부정을 하기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응답 표현이라고 하면서 ‘중립적 응답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해영(1994:143)에서는 선행대화참여자의 진술이나 질문, 제안, 명령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하고 응대를 회피할 때도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발화자는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고 있다.

- 16) 이와 같은 불분명한 태도로서 선택의 태도 표명을 유보하는 말로는 ‘글썄’ 외에도 ‘몰라, 모르겠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보 화행을 통해 완곡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한다.
- 17) 장경희(1997:230)에서는 대화의 특성을 갖춘 구성체로 최소로 진행된 형식을 ‘단위 대화’라 하고, 구현정(2002:82)에서는 대화의 최소단위로서 주는 말에 대한 받는 말로 쌍을 이루는 것을 ‘대응쌍’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보 화행이 들어있는 이러한 단위는 최소 단위가 확대된 형태로

그러므로 행위에 관한 요구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의 태도를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8ㄴ)처럼 불분명한 태도로써 태도의 결정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19ㄴ1)처럼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조건만 맞으면 요구를 받아들일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화합적인 태도의 이러한 발화 유형을 ‘유보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행위], [+화합]이 된다.

2.7. 반문 화행

반문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후행화자의 생각, 느낌과 같은 사고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태도가 요구 받은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선행발화에서 이해의 부족 부분을 되묻는 등의 태도를 보여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관정 여부를 나타내기보다는 선행발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확인, 보충이나 반박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 (20) ㄱ₁. 너 어제 영화 보러 갔었니?
 ㄴ₁. 왜 그래요?
 ㄱ₂. 아, 영화관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봐서.
 ㄴ₂. 아니요. 전 어제 도서관에 있었어요.

(20)은 선후배끼리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선배가 후배에게 사고 내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ㄱ1)에서 선배는 어제에 관한 후배의 경험에 대해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후

확대의 크기는 임의적이어서 제한적이지 않다.

배는 (20-1)처럼 요구 내용에 대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 뒤, (20-2)처럼 자신이 요구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서야 (20-2)처럼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반문 화행은 선행발화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보 화행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유보 화행이 선택의 태도를 미루는 것과는 달리 반문 화행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되묻는 것이 되므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고에 관한 요구 내용에 대해 후행화자가 취하게 되는 태도가 요구 받은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이해의 부족 부분을 되묻는 등의 태도를 보여서 선행발화의 이해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반문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확정], [사고]가 된다.

2.8. 목살 화행

목살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의 반응 요구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언어적인 반응은 하되, 요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함으로써 화제의 방향을 바꾸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내용에 대한 회피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 (21) ㄱ. 내일부터는 너도 공부 좀 하지?
 ㄴ. 어, 지금 몇 시지? 늦었다.

(21)은 형과 동생의 대화로 선행화자인 형이 동생에게 공부하기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21-ㄱ)에 대하여 후행화자인 동생은 (21-ㄴ)처럼 형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시각에 대한

말을 제시함으로써 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처럼 언어적으로는 선행발화에 대해 반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발화의 요구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내용의 화제로 말을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선행발화의 말을 강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반응을 목살 화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화자의 반응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의 반응을 하는 경우여서, 선행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당혹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는 원만한 대화가 성립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선행발화에 대한 후행화자의 말이 선행발화의 내용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목살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은 [+반응], [-관련], [-화합]이 된다.

2.9. 무응답 화행

무응답 화행이란 선행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의도적으로 언어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로, 후행화자의 ‘언어적 무반응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¹⁸⁾

- (22) ㄱ. 내일까지는 해 줄 수 있지?
 ㄴ. 알았어.

18) 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화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화자의 의도 있는 의미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23) ㄱ. 내일까지는 해 줄 수 있지?

ㄴ. ...

(22)-(23)은 친구사이에 선행화자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22 ㄱ)에 대하여 (22 ㄴ)은 자신의 태도를 말로 나타내는데 반해, (23 ㄴ)은 (23 ㄱ)에 대하여 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아 후행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지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선행발화에서 내용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이와 같은 반응을 무응답 화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인 무반응은 후행화자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¹⁹⁾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첫째, 선행발화가 못마땅하여 후행화자가 반응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선행발화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감이 아주 강할 때 나타나게 된다.

둘째,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선행화자에게 자신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리할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말이 선행화자와의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거나 반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있어 나타나게 된다.

셋째, 말하는 행위 자체가 내키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는 선행발

19) 경우에 따라서는 후행화자가 반응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무반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후행화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무반응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해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점은 결과적으로 같다. 비의도적인 언어적 무반응은 다음의 경우일 때 일어난다.

- 첫째, 선행발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
- 둘째, 선행발화를 이해는 했으나 어떻게 해야 할 지 태도의 방향을 미처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 셋째, 선행발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 넷째, 상황에서 발화시간을 놓친 경우

화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적 반응을 대신하여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선행발화에 대해 암묵적으로 수용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선행발화 내용에 대해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을 때 나타나게 된다.

이 또한 선행화자의 반응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선행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무시 당했다고 생각하여 당혹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무반응으로 인한 모호한 태도에서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화행은 결과적으로 원만한 대화가 성립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소가 된다.²⁰⁾

그러므로 선행발화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후행화자가 언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에 대한 후행화자의 비협력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무응답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반응], [-화합]을 말할 수 있다.

IV. 맺음말

1. 대화에서의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실현이 되는 후행발화의 화행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여기서는 우선 선행발화의

20) 훈츠누르셔(1991:153)에서는 대화의 유지에 대해, “대화를 유지시키는 것은 말할이의 의사소통 목적이다. 이것은 아주 유지한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 대해서 한탄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같이 걱정을 해주기 바라고, ...”라고 하여 대화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용익(1998:5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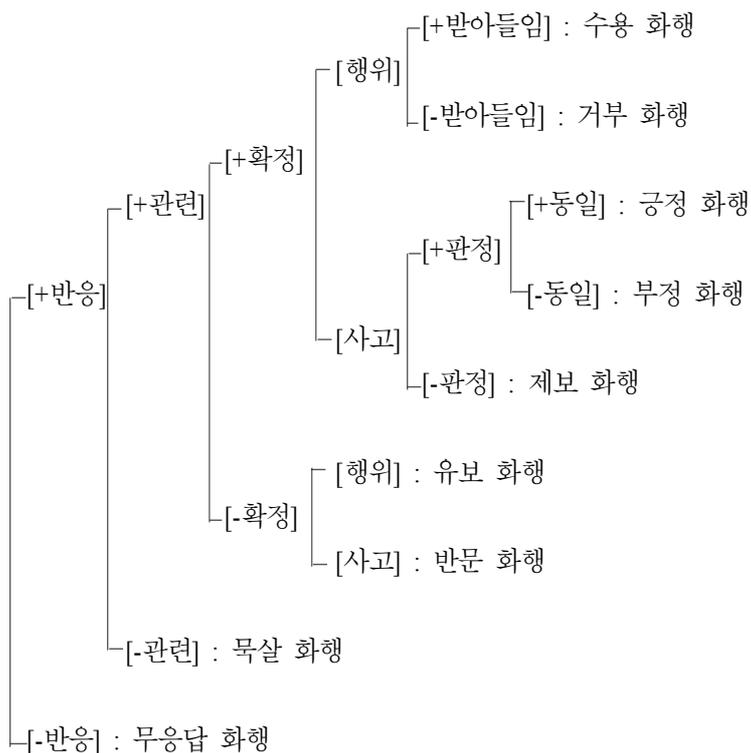
성격이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의 후행발화의 화행에 대하여 다루었다.

2. 후행발화의 화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행발화에 있어야 하는 화용적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공통 특징으로는 선행발화의 청자가 특정의 대화참여자여야 하고, 선행발화에서 청자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그 요구가 행위에 대한 청자의 선택적 태도 표출이나 내용에 관한 생각 표출을 의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특징으로는,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유무에 대한 의도가 어떤 양상으로 개입되는가에 따라 후행발화의 성격이 달라져, 후행화자가 파악하는 부담의 크기가 다르게 되고, 이에 대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 후행발화의 유형 설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 [+반응], [-반응]
- 2) 요구받은 내용에 관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 [+관련], [-관련]
- 3) 요구받은 내용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1) ‘받아들임’의 선택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받아들임], [-받아들임]
 - (2) ‘동일성에 대한 판정’의 태도가 어떠한가.
[+판정], [-판정] / [+동일], [-동일]
 - (3) ‘확정’의 태도가 어떠한가.
[+확정], [-확정]
 - (4) 대화의 방향성에서 ‘화합’을 의도하는가
[+화합], [-화합]

4. 이 기준에 맞추어 반응요구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 유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2. 논문

김미령, 『우리말 대응 발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2003, pp.94~95.
- _____, 「전달 목적 화행의 유형 설정에 대한 시도」, 우리말연구 17집, 우리말학회, 2005, pp.97~121.
- _____,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 설정」, 한민족어문학 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1~34.
- 김순자, 「대화의 맞장구 수행 형식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9, p.48.
- 류현미, 「반복의문문의 화행과 대화기능」,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2002, p.108.

3. 단행본

- 박용익,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1998, p.52.
- 서상규·구현정 공편, 『한국어 구어 연구(2)-대학생 대화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05, pp.159~306.
- 이필영,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9, p.102.
- 이혜영,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p.143.
- 장경희, 「국어의 대화 구조」, 한양어문 16집, 한양어문학회, 1997, p.220, p.230.
- 장경희, 「국어의 수용형 대화와 거부형 대화」, 텍스트 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9, pp.25~44.
- 최창렬, 「맥락과 발화의미」, 어학 10집, 전북대학 어학연구소, 1983a, p.55.

A Study on the Speech Act Patterns of Response Utterances
for Requiring Reaction

Kim, Mi-R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stablish speech act patterns of response utterances for requiring reaction. The criteria are conversational cooperations and conversational directions of speaker's intention of response utterances. They are subclassified by [±feature] of the relations of content, manners of choice, manners of judgment. Following these criteria, Speech act patterns are divided nine. They are 1. acceptance speech act 2. refusal speech act 3. affirmation speech act 4. negation speech act 5. suggestion speech act 6. reservation speech act 7. repetitive question speech act 8. ignoring speech act 9. non-response speech act

Key words : conversational cooperations, conversational directions, linguistic response, relations of content, manners of choice, manners of judgment, acceptance, refusal, affirmation, negation, suggestion, reservation, repetitive question, ignoring, non-linguistic response

김미령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주소: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번지
전화번호: (055)328-0373(집), 011-9506-2767
전자우편: mmiryung@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